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일 시	담 당 팀	네트워크전략팀
2026.11.13.(금) 09:00	담 당 자	문재진 팀장(053-230-1761) 정가람 책임(053-230-1762)

KOREN, 대한민국 인터넷 31년의 역사를 넘어 AI 네트워크의 미래를 잇다

- 과기정통부·NIA, KOREN 31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민국 네트워크 발전 유공자 31인 공로상 수여
- AI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혁신·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 넷 챌린지 캠프 시즌 13 시상식 개최… AI·네트워크 분야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원장 김형철)와 KOREN 연구협력포럼이 주관하는 「KOREN 31주년 기념행사」가 11월 12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 이번 행사는 ‘KOREN, 인터넷의 시대를 열다, AI 네트워크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지난 31년간 대한민국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온 KOREN의 성과를 돌아보고,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본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KOREN 연구협력포럼, AI Network Alliance(AINA), 국내 산학연 관계자 및 넷 챌린지 캠프 참가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은 1995년 출범한 국가

연구시험망으로,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제공해 왔다.

ㅇ 특히 상용망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기술을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산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의 성능 검증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했다.

□ 이날 1부 기념행사에서는 KOREN의 지난 31년간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대한민국 네트워크 기술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ㅇ 충남대학교 김대영 교수는 대한민국 인터넷 발전 과정과 KOREN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으며, KT 정재민 상무는 AI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ㅇ 이어 대한민국 인터넷 발전과 국산 네트워크 기술 자립에 기여한 산학연 관계자 31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지난 31년간 KOREN의 구축·운영과 기술혁신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공로를 기렸다.

ㅇ 이번 공로상은 KOREN의 출범 초기부터 각 발전 단계에 걸쳐 기여한 인물을 폭넓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별도 시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대별·기관별 기여도와 공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 2부에서는 「넷 챌린지 캠프 시즌 13」 시상식을 개최하고, AI·네트워크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수 학생팀 7개 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ㅇ 올해 넷 챌린지 캠프에는 전국 32개 대학에서 53개 팀, 155명이 참가했으며, 약 5개월간의 기술 멘토링과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우수팀이 선정됐다.

□ 이어 진행된 AI Network Alliance(AINA) 특별 세션에서는 AI 네트워크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국내 AI 네트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ㅇ 또한 산학연 전문가와 넷 챌린지 캠프 참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통해 KOREN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고, AI 네트워크 기술 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NIA 김형철 원장은 “지난 31년간 KOREN은 대한민국 인터넷 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수많은 연구자와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뒷받침해 왔다.” 며,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AI 기술 주권 확보와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학연과 함께 AI 네트워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고 밝혔다.

붙 임 사진자료

<단체사진>



[KOREN 31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가운데 김형철 원장(NIA)]